

## 전북지역 주부들의 외식행동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조사

김인숙\* · 유현희\*\* · 박선화\*\*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2000년 7월 30일 접수)

### A Survey on Consciousness of Eating out Behavior and Food Waste by Housewives in Jeonbuk Area

In-Sook Kim\*, Hyeon-Hee Yu\*\* and Sun-Hwa Park\*\*

Dept. Food and Nutrition, Wonkwang University\*, Officials for Jeonlabukdo agriculture technique\*\*

(Received July 30, 2000)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veral aspects of eating out behavior especially in relation to food wast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620 housewives in Jeonbuk area but, except for 134 case not eating out. The 66.9% of subjects ate eating out 1 to 2 times monthly. The younger in age, higher in education level and employed housewives, higher in monthly income have a more increase in eating out frequency. In the 50.8% of subjects food rest was rare when eating out. The higher in educational level and higher in monthly income have an inclination to more food waste. The 51.4% of subjects don't know [Good Menu System]. We housewives should order a planned and moderate food amount when eating out, and make an effort normally anywhere for the reduction of food waste, and then the wasted food and food rubbish will be reduced. Besides this, the restaurants should practice [Food Bank] & [Good Menu System] and the academic world should make further researches on this field. Moreover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should enlighten the people and have a public information for the more reasonable food culture.

**Key Words** : eating out behavior, food waste, housewives

#### I. 서론

도시가계의 가구당 식료품비 중 외식비가 '80년에는 3.7%에 불과하던 것이 '90년 20.3%였으며 IMF관리 체제 이후 절대적인 외식비는 줄었으나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는 계속 증가하여 '98년 33.5%, '99년 35.5%였으며, 2000년 1/4분기에는 39.8%로 증가하였다<sup>1)</sup>. 그 이유는 외식의 동기 자체가 식사의 끼니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주부들의 경우는 식사 준비의 번거러움을 피하고, 그 외 다수의 사람은 사교적인 이유나 식도락을 즐기는 차원으로 외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식의 동기 자체가 과거에 비하여 일상생활의 간편화, 사교화, 레저화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sup>. 또한 주부의 사회 참여를 들 수 있는데, IMF로 인한 가장의 실직 또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전업 주부들이 대거 취업전선에 나섬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 노동 참여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의 투입량은 줄어들 전망이다<sup>3)</sup> 외식의 빈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식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도 증가할 것이다.

환경오염문제 중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

는 것은 쓰레기 문제이며, 음식물 쓰레기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변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90년 23,003톤이었으나 '92년 4월 '좋은 식단'의 전면 확대 실시와 '95년 1월 쓰레기 중량제 실시, '97년 IMF로 점차 감소하여 '97년에는 13,063톤, '98년 11,774톤이었으나 IMF가 지나가면서 '99년상반기 12,176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13,575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을 발생원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은 42%, 가정은 41%, 시장은 13%, 집단급식소 4%순으로 나타나 음식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음식점으로 나타났으며<sup>4-6)</sup>, Park 등<sup>7)</sup>의 연구에서 보듯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폐기 방법이 가장 많은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처리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협소한 국토면적을 갖는 경우 매립부지의 확보 등<sup>8)</sup>은 향후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높은 수분 함유량과 부패성 유기물로 수거 운반에 따른 악취 등과 매립에서의 부패로 인한 악취, 유해가스 발생, 해충 번식 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의 안정화 지연 등은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의 악화를 유발하여 매립지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매립지의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이나 하천수, 토양의 오염 유발 가능성이 크고 이의 예방을 위하여는 침출수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매립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음식물 쓰레기 대책으로는 향후 감량화, 재활용,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 등의 방법이 있으며<sup>6)</sup>,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대형 음식점 등 대규모 배출원에 대한 감량화 설비 의무화, 집단퇴비화시설의 설치와 2000년 정책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는 우수음식점을 "환경음식점"으로 선정·홍보를 하고 있다<sup>9)</sup>. 이와 병행하여 발생전 감량화로 음식물 안남기기, 좋은 식단체 등을 내무부와 음식점중앙회 여성단체 등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의 발생은 소비자의 식행태 및 식의식과도 관련이 있고, 사람의 식습관이나 식문화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수십년에서 수천년에 이르는 기간에 형성되는 것이다<sup>10)</sup>.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소비자의 의식, 태도를 고찰해 보고, 대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외식에 관련된 연구<sup>2,10,11)</sup>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로써 문제 전반에 대한 의식이나 행동에 관한 연구<sup>13-16)</sup>, 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연구<sup>17)</sup>, 대중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량 실태 파악<sup>18)</sup>, 잔반에 관한 연구<sup>19,20)</sup> 식품 폐기물 조사<sup>21)</sup>, 음식물 쓰레기와 조리행동<sup>22)</sup>,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sup>23,24)</sup> 등이 있으나 주부의 외식행동과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관련된 연구 논문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식시 주부들의 습관, 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과 재활용의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식을 조사하여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전라북도내 20~60대 주부를 대상으로 시군생활지도사의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1998년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6개 시(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299명, 8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21명, 총 620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중 외식을 한번도 하지 않은 134명을 제외한 486(78.4%)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일반사항으로 연령, 학력, 직업, 가족형태(가족수), 월소득 등을 조사하였고 외식행동에 관한 질문으로는 외식회수, 외식종류, 음식 주문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외식에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질문으로는 외식시 음식을 남기는 횟수와 음식을 남기는 이유, 남은 음식 처리 사항,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 여부와 현재 감량 정도 인식, 줄지 않은 이유, 좋은 식단체 인식 여부에 관한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후 수거된 설문지는 SPSS(ver 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로 절대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일반적 특성과 외식시 음식을 남기는 횟수에 따른 외식 행동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95%에서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형태, 월소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86)

	Variables	N	Percentage(%)
Age	<29	113	23.3
	30~39	145	29.8
	40~49	90	18.5
	50~59	85	17.5
	60<	53	10.9
Education	<Primary	110	22.6
	Middle	77	15.8
	High	188	38.7
	College<	111	22.8
Job	None	374	77.0
	Have	112	23.0
Family status	Couple	67	13.8
	Nuclear family	260	53.5
	3 generation	127	26.2
	others	32	6.6
Monthly income (10,000won)	<100	166	34.2
	101-200	228	46.8
	201<	92	18.9

액 등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0대 23.3%, 30대 29.8%, 40대 18.5%, 50대 17.5%, 60대 10.9%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국졸

이하 22.6%, 중졸 15.8%, 고졸 38.7%, 대졸이상 22.8%로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77.0% 있다는 23.0%였다. 가족형태는 부부만 13.8%, 부부+자녀 53.5%, 부부+웃어른 2.5%, 부부+웃어른+자녀 23.7% 기타 6.6%로 가족수는 한명에서 10명까지 있으며 2명이하 6.1%, 3~4명 44.6%, 5명이상 39.3%로 평균 4.16명으로 전국 평균의 3.6명<sup>1)</sup>보다 많았다. 100만원이하가 34.2%, 101-200만원 46.9%, 200만원이상이 18.9%로 101~200만원이 가장 많았다.

2. 조사대상자의 외식 행동과 음식 쓰레기에 관련된 사항

1) 외식 행동

조사대상자의 외식 횟수, 외식 종류, 음식 주문 방법에 대한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외식 횟수

조사대상자의 외식 횟수는 <표 2>와 같으며 한달에 1~2회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3~4회 20.8%, 5회이상 12.3% 였다. 연령별로 보면 1~2회는 60대가 92.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50대, 40대, 20대 순이었다. 5회 이상은 20대가 23.9%, 30대는 9.7%, 40대는 12.2%, 50대는 9.4% 있으나 60대는 한명도 없었다. 학력별로는 1~

<Table 2> Frequency of eating out

		1~2times /Month	3~4times /Month	More than 5times/Month	N	$\chi^2$
Total			325(66.9)	101(20.8)	60(12.3)	486(100)
Age	<29	55(48.7)	31(27.4)	27(23.9)	113(100)	39.51***
	30~39	105(72.4)	26(17.9)	14( 9.7)	145(100)	
	40~49	59(65.6)	20(22.2)	11(12.2)	90(100)	
	50~59	57(67.1)	20(23.5)	8( 9.4)	85(100)	
	60<	49(92.5)	4( 7.5)	0( 0.0)	53(100)	
Education	<Primary	93(84.5)	12(10.9)	5( 4.5)	110(100)	77.18***
	Middle	57(74.0)	19(24.7)	1( 1.3)	77(100)	
	High	131(69.7)	39(20.7)	18( 9.6)	188(100)	
	College<	44(39.6)	31(27.9)	36(32.4)	111(100)	
Job	None	278(74.3)	71(19.0)	25( 6.7)	374(100)	58.16***
	Yes	47(42.0)	30(26.8)	35(31.3)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132(79.5)	23(13.9)	11( 6.6)	166(100)	50.31***
	101-200	151(66.2)	57(25.0)	20( 8.8)	228(100)	
	200<	42(45.7)	21(22.8)	29(31.5)	92(100)	

\*\*\* : p<0.001

2회는 국졸이 84.5%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고졸, 대졸이었으며, 5회이상은 대졸이상인 32.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국졸이하 중졸 순이었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1~2회가 74.3%, 있는 경우는 42.0%였으며 5회 이상은 없는 경우는 6.7%였으나 있는 경우는 31.3%였다. 월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이하인 경우는 1~2회가 79.5%, 101~200만원은 66.2%, 200만원이상은 45.7%며 5회상은 200만원이상이 31.5%로 가장 많고, 101~200만원, 100만원이하로 나타났다. 주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가, 월소득이 높을수록 외식 비율이 높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Lee 등<sup>2)</sup>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는 사람이 외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외식 종류

<표 3>에 의하면 외식 종류로 한식이 6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식 9.3%, 분식 8.8%, 양식 7.8%, 일식 2.7% 등으로 나타났다. 20대와 60대는 한식 다음에 분식을, 30대는 한식 다음에 양식, 40대는 한식 다음에 중식, 50대는 한식 다음에 중식과 분식으로, 50대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한식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5$ ).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는 한식 다음에 분식을, 101~200만원인 경우는 한식 다음에 중식,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한식 다음에 양식을 선호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5$ ). Song 과 Hong<sup>25)</sup>이 수행한 연구에서 20대에서 한식의 외식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월수입이 높아질수록 양식의 비율이 높아진 것과는 같은 결과를 보였다. 국졸 이하는 한식 다음에 중식, 중졸은 한식 다음에 분식, 고졸은 한식 다음에 중식과 양식, 대졸이상은 한식 다음에 양식을 선택하여 유의한 차가 있었다( $p<0.05$ ). 전국민 라이프스타일 조사결과에서도 한식당을 가장 선호했고(68.3%), 패스트푸드(8.6%) 부페(4.9%), 일식당(4.4%) 등의 순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외식은 한달에 1.4번 정도로 조사됐다<sup>24)</sup>.

(3) 음식 주문 방법

음식 주문시 먹을만큼 계획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94.0% 였으나 넉넉히 주문한다는 사람도 6%나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였다. 특히 60대 주부에서 넉넉히 주문한다는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4>

<Table 3> Items of eating out

	Korean style	Chinese style	Noodle	Western style	Japanese style	Buffe	Fast Food	N	$\chi^2$
Total	334(68.7)	45( 9.3)	43( 8.8)	38( 7.8)	13( 2.7)	9( 1.9)	4( 0.8)	486(100)	
Age									
<29	74(65.5)	8( 7.1)	13(11.5)	13(11.5)	2( 1.8)	0( 0.0)	3( 2.7)	113(100)	36.01*
30~39	93(64.1)	16(11.0)	9( 6.2)	20(13.8)	4( 2.8)	2( 1.4)	1( 0.7)	145(100)	
40~49	64(71.1)	9(10.0)	8( 8.9)	3( 3.3)	4( 4.4)	2( 2.2)	0( 0.0)	90(100)	
50~59	65(76.5)	7( 8.2)	7( 8.2)	1( 1.2)	2( 2.4)	3( 3.5)	0( 0.0)	85(100)	
60<	38(71.7)	5( 9.4)	6(11.3)	1( 1.9)	1( 1.9)	2( 3.8)	0( 0.0)	53(100)	
Education									
<Primary	78(70.9)	13(11.8)	12(10.9)	1( 0.9)	2( 1.8)	4( 3.6)	0( 0.0)	110(100)	29.71*
Middle	48(62.3)	8(10.4)	10(13.0)	6( 7.8)	3( 3.9)	2( 2.6)	0( 0.0)	77(100)	
High	131(69.7)	18( 9.6)	10( 5.3)	17( 9.0)	5( 2.7)	3( 1.6)	4( 2.1)	188(100)	
College<	77(69.4)	6( 5.4)	11( 9.9)	14(12.6)	3( 2.7)	0( 0.0)	0( 0.0)	111(100)	
Job									
None	245(65.5)	39(10.4)	35(9.4)	33( 8.8)	11( 2.9)	7( 1.9)	4( 1.1)	374(100)	9.04
Have	89(79.5)	6( 5.4)	8( 7.1)	5( 4.5)	2( 1.8)	2( 1.8)	0( 0.0)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110(66.3)	20(12.0)	21(12.7)	6( 3.6)	4( 2.4)	5( 3.0)	0( 0.0)	166(100)	25.38*
101-200	160(70.2)	21( 9.2)	17( 7.5)	19( 8.3)	4( 1.8)	4( 1.8)	3( 1.3)	228(100)	
200<	64(69.6)	4( 4.3)	5( 5.4)	13(14.1)	5( 5.4)	0( 0.0)	1( 1.1)	92(100)	

\* :  $p<0.05$

<Table 4> Methods of food order

	Planing	over member	N	$\chi^2$
Total	457(94.0)	29( 6.0)	486(100)	
Age				
<29	106(93.8)	7( 6.2)	113(100)	11.77**
30~39	143(98.6)	2( 1.4)	145(100)	
40~49	82(91.1)	8( 8.9)	90(100)	
50~59	80(94.1)	5( 5.9)	85(100)	
60<	46(86.8)	7(13.2)	53(100)	
Education				
<Primary	98(89.1)	12(10.9)	110(100)	6.27
Middle	74(96.1)	3( 3.9)	77(100)	
High	179(95.2)	9( 4.8)	188(100)	
College<	106(95.5)	5( 4.5)	111(100)	
Job				
None	352(94.1)	22( 5.9)	374(100)	0.02
Have	105(93.8)	7( 6.3)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151(91.0)	15( 9.0)	166(100)	4.23
101-200	218(95.6)	10( 4.4)	228(100)	
200<	88(95.7)	4( 4.3)	92(100)	

\*\* : p<0.01

2) 외식에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외식에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질문으로는 외식시 음식을 남기는 횟수와 이유, 처리 방법, 감량 노력 여부, 현재 감량에 대한 정도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법, 좋은 식단체 인식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식시 음식을 남기는 횟수

외식시 음식을 남기는 횟수는 없다가 62%, 거의 없다 35.8%, 가끔 남긴다 50.8%, 자주 남긴다 72%로 가끔 남긴다가 가장 많았으며 자주 남긴다도 72%나 되었다(표 5). Lee 와 Lee<sup>3)</sup>의 IMF시대 식생활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IMF에 의한 가계의 소득변화로 식생활 관련 상품의 가격에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계획성 있는 식생활로 식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결과로 당장 눈앞에 제시되는 않는 이득을 얻기위한 적극적인 소비자 의식의 결여에서 나온 결과라 하겠다. 연령에 대해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이 모든 연령에서 가끔 있다가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에서 자주있다가 14.4%로 높아 유의적 차이가 났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sup>27)</sup>에서 외식때 음식을 가끔 남긴다는 응답자의 52.4%, 자주 남긴다는 22.0%로 10명 중 7명 꼴로 남긴다고 대답하였으며 고졸은 18.9%, 대졸은 25.6%, 대학원졸은 29.4%가 남긴다고 하여 학

<Table 5> Frequency of food waste when eating out

	Never	Rare	Sometimes	Often	N	$\chi^2$
Total	30( 6.2)	174(35.8)	247(50.8)	35( 7.2)	486(100)	
Age						
<29	3( 2.7)	36(31.9)	63(55.8)	11( 9.7)	113(100)	18.03
30~39	7( 4.8)	51(55.2)	76(52.4)	11( 7.6)	145(100)	
40~49	10(11.1)	27(30.0)	46(51.1)	7( 7.8)	90(100)	
50~59	8( 9.4)	33(38.8)	41(48.2)	3( 3.5)	85(100)	
60<	2( 3.8)	27(50.9)	21(39.6)	3( 5.7)	53(100)	
Education						
<Primary	13(11.8)	48(43.6)	46(41.8)	3( 2.7)	110(100)	29.60***
Middle	7( 9.1)	30(39.0)	36(46.8)	4( 5.2)	77(100)	
High	8( 4.3)	62(33.0)	106(56.4)	12( 6.4)	188(100)	
College<	2( 1.8)	34(30.6)	59(53.2)	16(14.4)	111(100)	
Job						
None	24( 6.4)	147(39.3)	181(48.4)	22( 5.9)	374(100)	11.52**
Have	6( 5.4)	27(24.1)	66(58.9)	13(11.6)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16( 9.6)	67(40.4)	70(42.2)	13( 7.8)	166(100)	13.21*
101-200	12( 5.3)	79(34.6)	124(54.4)	13( 5.7)	228(100)	
200<	2( 2.2)	28(30.4)	53(57.6)	9( 9.8)	92(100)	

\* : p<0.05, \*\* : p<0.01, \*\*\* : p<0.001

<Table 6> Cause of food waste

	too many sorts and amounts (in side-dish)	low taste	unsuitable in order unit	much soup	Others	N	$\chi^2$
Total	265(58.1)	80(17.5)	32( 7.0)	29( 6.4)	50(11.0)	486(100)	
Age							
<29	56(50.9)	25(22.7)	9( 8.2)	6( 5.2)	14(12.7)	113(100)	27.09*
30~39	88(63.8)	20(14.5)	16(11.6)	5( 3.6)	9( 6.5)	145(100)	
40~49	50(62.5)	14(17.5)	5( 6.3)	5( 6.3)	6( 7.5)	90(100)	
50~59	43(55.8)	13(16.9)	2( 2.6)	7( 9.1)	12(15.6)	85(100)	
60<	28(54.9)	8(15.7)	0( 0)	6(11.8)	9(17.6)	53(100)	
Education							
<Primary	51(52.6)	19(19.6)	3( 3.1)	10(10.3)	14(14.4)	110(100)	32.41**
Middle	38(54.3)	10(14.3)	3( 4.3)	6( 8.6)	13(18.6)	77(100)	
High	112(62.2)	38(21.1)	9( 5.0)	7( 3.9)	14( 7.8)	188(100)	
College<	64(58.7)	13(11.9)	17(15.6)	6( 5.5)	9( 8.3)	111(100)	
Job							
None	197(56.3)	67(19.1)	20( 5.7)	25( 7.1)	41(11.7)	374(100)	8.93*
Have	68(64.2)	13(12.3)	12(11.3)	4( 3.8)	9( 8.5)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78(52.0)	29(19.3)	6( 4.0)	13( 8.7)	24(16.0)	166(100)	22.39**
101-200	133(61.6)	42(19.4)	13( 6.0)	12( 5.6)	16( 7.4)	228(100)	
200<	54(60.0)	9(10.1)	13(14.4)	4( 4.4)	10(11.1)	92(100)	

\* : p<0.05, \*\* : p<0.01

력이 높을수록 음식을 남기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직업이 있는 사람이(p<0.01), 월수득이 높을수록(p<0.05) 자주 남긴다고 대답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위 질문에서 음식을 남기는 사람 456명을 대상으로 음식을 남기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찬의 가지수와 양이 많아서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맛이 없어서 17.5%, 국물이 많아서 6.4%등의 대답이 나왔다.

(2) 남은 음식 처리

<표 7>에서 보면 남은 음식을 싸오는데 대해서 싸온다 32.7%, 버린다 67.3% 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p<0.01), 학력이 높을수록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오지 않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 Han 등<sup>23)</sup>의 20대가 다른 연령층 보다 가정내에서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와 Baun과 Kye<sup>12)</sup>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활용과 감량화 행동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과 Song과 Kwak<sup>24)</sup>의 연령이 많은 주부일수록 남은 식품이나 음식은 다시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60대에서 싸가지고 오는 비율

이 높았는데 앞서 결과에서 음식주문은 넉넉히 하는 비율이 60대가 가장 많았으나 음식을 남기는 횟수가 적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음식주문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항목이었다. 그러나 Baun과 Kye<sup>12)</sup>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 이용을 잘하여 재활용행동의 수행수준이 높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한다는 것과 Eom<sup>13)</sup>의 주부 학력이 높을수록 환경오염감소를 위한 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특히 쓰레기처리를 잘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가 다른 데서 오는 차이인지, 외식시 남은 음식 처리행동과 가사 중 쓰레기 처리 및 환경 오염 감소 변인과 관련성 차이에서 오는 결과인지 등에 대해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였다.

남은 음식을 싸오지 않는 이유로는 싸가지고 온 음식을 안먹어서가 39.1%, 눈치가 보여서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귀찮아서 11.0%, 적당히 남기는 것이 관습이어서 등의 대답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주원인을 보면 20대, 30대, 60대는 안먹어서, 40대와 50대는 눈치가 보여서로 대답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Table 7> Taking home rest food <Yes/No>

	Yes	No	N	$\chi^2$
Total	159(32.7)	327(67.3)	486(100)	
Age				
<29	25(22.6)	88(77.9)	113(100)	15.69**
30~39	44(30.3)	101(69.7)	145(100)	
40~49	35(38.9)	55(61.1)	90(100)	
50~59	28(32.9)	57(67.1)	85(100)	
60<	27(50.9)	26(49.1)	53(100)	
Education				
<Primary	46(41.8)	64(58.2)	110(100)	7.96*
Middle	22(28.6)	55(71.4)	77(100)	
High	51(27.1)	137(72.9)	188(100)	
College<	40(36.0)	71(64.0)	111(100)	
Job				
None	114(30.5)	260(69.5)	374(100)	3.68
Have	45(40.2)	67(59.8)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58(34.9)	108(65.1)	166(100)	3.93
101-200	65(28.5)	163(71.5)	228(100)	
200<	36(39.1)	56(61.9)	92(100)	

\* : p<0.05, \*\* : p<0.01

학력별로는 국졸 이하와 중졸은 눈치가 보여서, 고졸과 대졸이상은 안먹어서라고 대답하여 학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01), 직업이 없는 경우는 안먹어서 있는 경우는 눈치가 보여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월소득이 100만원이하는 눈치가 보여서, 101-200만원, 200만원이상은 안먹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8). 한국인의 식습관 중 비합리적 의식구조 중 한가지를 보여 주는 사항으로 의식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 여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 여부는 <표 9>와 같으며, 매우 노력한다 34.8%, 다소 노력한다 59.1%, 안한다 6.2%로 나타났다. 1998년 2월 소비자 보호원 조사 발표의 77.8%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실천 중이며 같은 해 6월 소비자 시민 모임 조사의 87.9%가 적극 참여한다<sup>3)</sup>와 마찬가지로 실천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는 매우 노력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다소 노력한다는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중졸에서 매우 노력한다는 비율이 높고, 나머지 학력에서는 다소 노력한다는 비율이 높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직업과 월소득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다소 노력한다는

<Table 8> Reasons for not taking home rest food

	Not eat	for honor's sake	Boredom	accustomed to rest	Others	N	$\chi^2$
Total	128(39.1)	111(33.9)	36(11.0)	9(2.8)	43(13.1)	486(100)	
Age							
<29	37(42.0)	23(26.1)	15(17.0)	1(1.1)	12(13.6)	113(100)	21.98
30~39	43(42.6)	32(31.7)	12(11.9)	2(2.0)	12(11.8)	145(100)	
40~49	21(38.2)	23(41.8)	3( 5.5)	2(3.6)	6(11.0)	90(100)	
50~59	17(29.8)	25(43.9)	3( 5.3)	3(5.3)	9(17.8)	85(100)	
60<	10(38.5)	8(32.8)	3(11.5)	1(3.8)	4(15.4)	53(100)	
Education							
<Primary	16(25.0)	28(43.8)	7(10.9)	4(6.3)	9(14.0)	110(100)	41.07***
Middle	15(27.3)	30(54.5)	2( 3.6)	1(1.8)	7(12.7)	77(100)	
High	67(48.9)	37(27.0)	14(10.2)	3(2.2)	16(11.6)	188(100)	
College<	30(42.3)	16(22.5)	13(18.3)	1(1.4)	11(15.5)	111(100)	
Job							
None	109(41.9)	88(33.8)	25( 9.6)	8(3.1)	30(11.5)	374(100)	7.76
Have	19(28.4)	23(34.3)	11(16.4)	1(1.5)	13(19.4)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31(28.7)	41(38.0)	11(10.2)	7(6.5)	18(16.7)	166(100)	18.19*
101-200	70(42.9)	56(34.4)	19(11.7)	1(0.6)	17(10.4)	228(100)	
200<	27(48.2)	14(25.0)	6(10.7)	1(1.8)	8(14.3)	92(100)	

\* : p<0.05 \*\*\* : p<0.001

<Table 9> Effort to reduce food waste <Yes/No>

		Yes		No	N	$\chi^2$
		Great	Slight			
	Total	169(34.8)	287(59.1)	30( 6.2)	486(100)	
Age	<29	19(16.8)	83(73.5)	11( 9.7)	113(100)	46.91***
	30~39	40(27.6)	99(68.3)	6( 4.1)	145(100)	
	40~49	43(47.8)	42(46.7)	5( 5.6)	90(100)	
	50~59	46(54.1)	37(43.5)	2( 2.4)	85(100)	
	60<	21(39.6)	26(49.1)	6(11.3)	53(100)	
Education	<Primary	45(40.9)	56(50.9)	9( 8.2)	110(100)	20.08**
	Middle	39(50.6)	37(48.1)	1( 1.3)	77(100)	
	High	58(30.9)	117(62.2)	13( 6.9)	188(100)	
	College<	27(24.3)	77(69.4)	7( 6.3)	111(100)	
Job	None	128(34.2)	223(59.6)	23( 6.1)	374(100)	0.23
	Have	41(36.6)	64(57.1)	7( 6.3)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68(41.0)	90(54.2)	8( 4.8)	166(100)	6.62
	101-200	68(29.8)	142(62.3)	18( 7.9)	228(100)	
	200<	33(35.9)	55(59.8)	4( 4.3)	92(100)	

\*\* : p<0.01, \*\*\* : p<0.001

사람이 비율이 높았다.

(4) 현재 음식을 쓰레기 감량 정도

<표 10>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도에 대한 것

이며 많이 줄었다가 27.2%, 약간 줄었다가 49.6%, 줄지 않았다가 23.3%로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23.3%였다. 앞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 여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6.2%밖에 지나지 않은 것에 비하면

<Table 10> Food waste was reduced <Yes/No>

		Yes		No	합계	$\chi^2$
		Great	Slight			
	Total	132(27.2)	241(49.6)	113(23.3)	486(100)	
Age	<29	20(17.7)	55(48.7)	38(33.6)	113(100)	31.98***
	30~39	34(23.4)	79(54.5)	32(22.1)	145(100)	
	40~49	31(34.4)	43(47.8)	16(17.8)	90(100)	
	50~59	37(43.5)	39(45.9)	9(10.6)	85(100)	
	60<	10(18.9)	25(47.2)	18(34.0)	53(100)	
Education	<Primary	33(30.0)	48(43.6)	29(26.4)	110(100)	19.93**
	Middle	33(42.9)	32(41.6)	12(15.6)	77(100)	
	High	49(26.1)	98(52.1)	41(21.8)	188(100)	
	College<	17(15.3)	63(56.8)	31(27.9)	111(100)	
Job	None	98(26.2)	185(49.5)	91(24.3)	374(100)	1.37
	Have	34(30.4)	56(50.0)	22(19.6)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50(30.1)	78(47.0)	38(22.9)	166(100)	1.22
	101-200	58(25.4)	117(51.3)	53(23.2)	228(100)	
	200<	24(26.1)	46(50.0)	22(23.9)	92(100)	

\* : p<0.05, \*\* : p<0.01, \*\*\* : p<0.001



&lt;Table 11&gt; Reasons for no reduction of food waste

		natural consciousness for food waste	plantiful table	excessive food reception	insufficient facilities establishments	N	$\chi^2$
Total		34(30.1)	20(17.7)	35(31.0)	24(21.2)	486(100)	
Age	<29	11(28.9)	7(18.4)	11(28.9)	9(23.7)	113(100)	18.54**
	30~39	9(28.5)	10(31.3)	11(34.4)	2( 6.3)	145(100)	
	40~49	8(50.0)	2(12.5)	2(12.5)	4(25.0)	90(100)	
	50~59	1(11.1)	1(11.1)	4(44.4)	3(33.3)	85(100)	
	60<	5(27.8)	0( 0)	7(38.9)	6(33.3)	53(100)	
Education	<Primary	10(34.5)	1( 3.4)	8(27.6)	10(34.5)	110(100)	17.66
	Middle	3(25.0)	3(25.0)	3(25.0)	3(25.0)	77(100)	
	High	9(22.0)	6(14.6)	17(41.5)	9(22.0)	188(100)	
	College<	12(38.7)	10(32.3)	7(22.6)	2( 6.5)	111(100)	
Job	None	24(26.4)	15(16.5)	29(31.9)	23(25.3)	374(100)	6.24
	Have	10(45.5)	5(22.7)	6(27.3)	1( 4.5)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15(39.5)	3( 7.9)	8(21.1)	12(31.6)	166(100)	10.18
101-200		12(22.6)	12(22.6)	20(37.7)	9(17.0)	228(100)	
200<		7(31.8)	5(22.7)	7(31.8)	3(13.6)	92(100)	

\*\* : p&lt;0.01

높은 비율이었다. 이것은 기대치에 대한 반영 혹은 책임전가의 의도가 보이는 항목이었으며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20대와 60대가 줄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보다 많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표 9>에서의 20대와 60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빈도가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졸이 많이 줄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표 11>은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 않았다고 대답한 113명을 대상으로 줄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남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식생활 의식이 31.0%, 푸짐한 상차림이 30.1%, 과도한 음식 접대 문화가 21.2%, 시설 미비가 17.7%였으며, 국졸이하는 푸짐한 상차림과 과도한 음식접대 문화를, 고졸은 남기는 것을 당연시, 대졸이상은 푸짐한 상차림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아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p<0.05). 요식업주들의 좋은 식단체 실시의 문제점중 49.5%가 일반 소비자의 인식부족을 꼽은 것과 비슷한 결과로 소비자의 식생활 의식에 대한 개혁과 적당량의 반찬 제공이 필요하였다.

#### (5) 좋은 식단체 인식 여부

<표 12>를 보면 좋은 식단체를 알고 있다는 48.6%, 모른다가 51.4%로 모른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50대 이

&lt;Table 12&gt; I know [Good Menu System] &lt;Yes/No&gt;

	Yes	No	N	$\chi^2$
Total	236(48.6)	250(51.4)	486(100)	
Age				
<29	60(53.1)	53(46.9)	113(100)	37.91***
30~39	87(60.0)	58(40.0)	145(100)	
40~49	51(56.7)	39(43.3)	90(100)	
50~59	28(32.9)	57(67.1)	85(100)	
60<	10(18.9)	43(91.1)	53(100)	
Education				
<Primary	22(20.0)	88(80.0)	110(100)	54.93***
Middle	34(44.2)	43(55.8)	77(100)	
High	107(56.9)	81(43.1)	188(100)	
College<	73(65.8)	38(34.2)	111(100)	
Job				
None	161(43.0)	213(57.0)	374(100)	19.74***
Have	75(67.0)	37(33.0)	112(100)	
Monthly income (10,000won)				
<100	55(33.1)	111(66.9)	166(100)	34.28***
101-200	116(50.9)	112(49.1)	228(100)	
200<	65(70.7)	27(29.3)	92(100)	

\* : p&lt;0.001

상과 중졸 이하, 직업이 없는 경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에서 모른다는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p<0.001). Park 등<sup>7)</sup>의 연구에서 좋은 식단체 실시 이유로 가장 큰 잇점으로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를 꼽을 것과 견주어 볼 때 50대상의 전업 주부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체에 대한 홍보활동과 교육, 캠페인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겠다.

3) 외식시 음식을 남기는 횟수와 다른 변수와 관련성

<표 13>는 외식시 음식을 남기는 횟수에 다른 변수와 관련성을 알아본 것이다. 외식횟수가 1~2회인 경우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가 7.4%, 자주 남긴다가 4.9%였으며, 3~4회인 경우는 없다 3.0%, 자주 남긴다가 7.9%, 5회이상인 경우는 없다 5.0%, 자주 남긴다가 18.3%로 외식 횟수가 많을수록 음식을 남기는 횟수가 많아 유의적 결과를 보였다(p<0.001).

외식종류에서 한식은 가끔 남긴다 52.7%, 거의 없다

34.4%, 자주 남긴다 8.4% 없다가 4.5% 순으로 가끔 남긴다가 가장 많았다. 그외 가끔 남긴다 비율이 가장 높은 종류는 양식, 뷔페, 분식이었으며, 중식, 패스트푸드는 거의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일식은 거의 없다는 가끔 남긴다와 같은 비율로 가장 높았으나 외식 종류 중 자주 남긴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종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생선회집을 모두 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서 나온 결과라 하겠다.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뷔페였다.

음식 주문 방법에서 계획적으로 주문하는 경우는 가끔 남긴다가 50.8%, 거의 없다 37.4%, 자주 있다 6.6%, 없다 5.7% 순이었는데 넉넉히 주문하는 경우는 가끔 남긴다의 비율이 58.6%, 자주 남긴다 17.2%, 없다 13.8%, 거의 없다 10.3%였다. 넉넉히 주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p<0.01).

남은 음식을 집으로 싸오는 경우는 가끔 남긴다가 46.5%, 거의 없다가 40.9%, 자주 남긴다와 없다 각각

<Table 13> Frequency of food waste in eating out

	Never	Rare	Sometimes	Often	N	$\chi^2$
Frequency of eating out						
1~2times/m	24( 7.4)	134(41.2)	151(46.5)	16( 4.9)	325(100)	27.74**
3~4	3( 3.0)	27(26.7)	63(62.4)	8( 7.9)	101(100)	
5<	3( 5.0)	13(21.7)	33(55.0)	11(18.3)	60(100)	
Item of eating out						
Korean style	15( 4.5)	115(34.4)	176(52.7)	28( 8.4)	334(100)	13.17**
Chinese style	4( 8.9)	21(46.7)	19(42.2)	1( 2.2)	45(100)	
Noodle	3( 7.0)	14(32.6)	23(53.5)	3( 7.0)	43(100)	
Western style	4(10.5)	14(36.8)	19(50.0)	1( 2.6)	38(100)	
Japanese style	1( 7.7)	5(38.5)	5(38.5)	2(15.4)	13(100)	
Buffe	3(33.3)	2(22.2)	4(44.4)	0( 0.0)	9(100)	
Fast Food	0( 0.0)	3(75.0)	1(25.0)	0( 0.0)	4(100)	
Methods of food order						
Planning	26( 5.7)	171(37.4)	230(50.3)	30( 6.6)	457(100)	13.17**
over member	4(13.8)	3(10.3)	17(58.6)	5(17.2)	29(100)	
Taking home rest food						
Yes	10( 6.3)	65(40.9)	74(46.5)	10( 6.3)	159(100)	2.8
No	20( 6.1)	109(33.3)	173(52.9)	25( 7.6)	327(100)	
Effort to reduce food waste						
Yes/Great	18(10.7)	62(36.7)	79(46.7)	10( 5.9)	169(100)	18.62**
/Slight	11( 3.8)	100(34.8)	157(54.7)	19( 6.6)	287(100)	
No	1( 3.3)	12(40.0)	11(36.7)	6(20.0)	30(100)	
I know [Good Menu System]						
Yes	12( 5.1)	71(30.1)	134(56.8)	19( 8.1)	236(100)	8.73*
No	18( 7.2)	103(41.2)	113(45.2)	16( 6.4)	250(100)	

\*: p<0.05, \*\*: p<0.01, \*\*\*: p<0.001

63%였으며, 버리는 경우는 가끔 남긴다가 52.9%, 자주 남긴다 33.3%, 자주 남긴다 7.6%, 없다 6.1%였다. 버리는 경우가 가끔 남긴다와 자주 남긴다 비율이 약간 많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 여부에 따라서는 매우 노력하는 경우는 음식을 남기는 횟수가 가끔 남긴다 46.7%, 거의 없다 36.7%, 없다 10.7%, 자주 남긴다 5.9% 순이었으며 약간 노력하는 경우는 가끔 남긴다가 54.7%, 거의 없다 34.8%, 자주 남긴다 6.6%, 없다 3.8%, 안한다는 거의 없다 40.0%, 가끔 남긴다 36.7%, 자주 남긴다 6.6%, 없다 3.3%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없다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매우 노력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자주 남긴다는 안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좋은 식단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가끔 남긴다 56.8%, 거의 없다 30.1%, 자주 남긴다 8.1%, 없다 5.1%, 모른다는 가끔 남긴다 45.2%, 거의 없다 41.2%, 없다 7.2%, 자주 남긴다 6.4%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 < 0.05$ ). 좋은 식단에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음식을 남기는 횟수의 없다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직 좋은 식단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온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외식의 횟수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주문하며, 남는 음식은 싸오도록 하며, 평소 음식 쓰레기 감량에 노력을 하고, 좋은 식단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 음식을 남기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고찰되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북지역 주부의 외식행동과 이에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처리방안 및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전북지역내 주부 620명 중 외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134명을 제외한 48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30대 29.8%, 고졸 38.7%, 직업이 있다 23% 가족형태중 부부+자녀가 53.5%, 월수입 101-200만원/월 46.9%가 가장 많았다.
2. 외식횟수는 한달에 1-2회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가, 월소득이 높을수록 외식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외식종류로는 한식이 68.7%였으며, 음식 주문시 먹을만큼 계획적으로 주문한다가 94.0%였으나 넉넉히 주문한다가 6%나 있었으며 특히 60대 주부가 많았다.

3. 외식시 음식을 남기는 횟수는 가끔 남긴다가 50.8%로 가장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자주 남긴다의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은 음식에 대해 버린다는 경우가 67.3%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버린다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 여부는 노력하지 않는다가 62% 밖에 되지 않으나,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도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23.3%나 되어 기대치에 대한 반영 혹은 책임전자의 의도가 보이는 항목으로 여기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였다. 좋은 식단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51.4%로 50대 이상, 중졸 이하, 직업이 없는 경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자가 모른다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아 이들에 대한 홍보활동과 교육이 필요하였다.

4. 외식 횟수가 많을수록, 한식과 일식을 먹는 사람이, 음식 주문을 넉넉히 하는 경우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외식시 음식을 남기는 횟수가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보아, 연령이 낮고 학력, 월소득이 높은 주부들은 외식 빈도가 높고, 음식을 남기는 횟수가 유의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음식 또한 싸 가지고 오지 않고,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오는 습관을 기르며, 좀 더 경제적인 주문방법을 택하도록 해야겠다. 50-60대 이상 주부에서는 외식의 빈도는 적지만 주문시 넉넉히 주문하는 경우가 유의적으로 많았으므로 이를 위주로 교육함이 필요하였다. 음식을 남기는 횟수가 높은 외식의 종류로는 한식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 반찬의 양과 가짓수가 많아서가 58.1%이었다. 이에 소비자 교육 이외에도 음식점에서도 고객이 남기는 음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실천 방안으로 주문을 제외한 밥과 반찬의 경우 식당 구석의 일부 공간에 몇 가지 찬을 나열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양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는 자율배식방법 선택, 순차적으로 반찬을 제공하여 각자 고객이 먹을만큼만 덜어 먹기, [좋은 식단]에 제시된 적정량만 제공, 소형 찬그릇으로 교체, 개인 접시 제공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추진함이 요구되었다. 또한 남은 음식 재이용 운동(Food Bank)과 좋은 식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대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도록 유도하여야겠다. 더불어 학계에서는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함께 시민 단체 및 국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www.nso.co.kr>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 2) Young-Mee Lee, Ky-wan Lee, Hak-Kil Chang. Eating out behaviors and attitude toward Korean foods in adult, *Korean J. Dietary Culture*, 11(3): 317, 1996
- 3) Jin-Young Lee, Hye-Im Lee. A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Food Life in IMF Age. *Korean J. Dietary Culture*, 14(4): 333, 1999
- 4) Environmental Office. <http://www.me.co.kr> 음식물쓰레기감량화
- 5) Environmental Office. <http://www.me.co.kr> '99상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상황 분석·평가보고
- 6) Kim-Young Hann, Yu Beong Seg.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 *Food Industry* 135: 86-90, 1996
- 7) Myoung-Soon Park, Jang-il Han, Seong-Ai Kim. A Study on Consciousness of the Good Menu System by Restaurant Owners in Taejon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14(2): 147, 1999
- 8) Dongailbo <http://www.donga.com> '쓰레기 大亂' 오나...매립지 주민대책조사 실시. 2000.6.20
- 9) Environmental Office. <http://www.me.co.kr> 2000 음식물쓰레기 감량·재활용 정책
- 10) Seung-Hee Kye, Wu-Seon Lee, Ju-Hee Lee, Hyun-Kyung Moon. Survey on the Serving Size and Waste Rate of Frequency Consumed Dishes in Korean Style Restaurants.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3(1): 44, 1997
- 11) Geum-Soon Park, Young-Ja Shin. A Study of Dining Out Behaviours of Businessmen in Urban Regions. *Korean J. Soc Food Sci*, 12(1): 13, 1996
- 12) Jeang-Mi Roh, Young Sang Yoo.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2): 65, 1989
- 13) Ha-Jeong Eom. Housewife's Management Behavior Related to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1(2): 169, 1993
- 14) Soon-Hee Baun, Sun-Ja Kye. The Urban Housewives Consciousness and Behavior fo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ir Concern of the Household Wast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3): 88, 1995
- 15) Chae-Young Ro, Hyo-Shick Shin, Hae-Jung Joe. A Study on the Consumer Consciousness and Behavior on Environmental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9(2): 49, 1991
- 16) Doo-Ryon You, Mi-Young Sim.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Environment Probl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3): 123, 1998
- 17) Ye-Sook Jun, Mi-Kyeong Choi. The Systematic Study on Reduction. *Journal of the East Asian of Dietary Life*, 9(1): 55, 1999
- 18) Seung-Hee Kye, Hyun-Kyung Moon. Study on the Amounts of Kitchen Wastes and Method for Reduction of Its Wastes Disposal in Korean Style Restaura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4(2): 159, 1998
- 19) Hyun-Kyung Moon, Seung-Hee Kye, Hae-Rang Chung, Young-Chan Kim, In-San Song, Tae-Hee Song. Survey of Food Intake Amount and Waste Rate per Person on Korean Style Restaurants. Jin-Young Lee, Hye-Im Lee. A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Food Life in IMF Age. *Korean J. Dietary Culture*, 8(3): 231, 1993
- 20) Wan-Soo Hong, Hye-JIN Kim, Kyung Ryu. A Case Study on the Analysis of Patients Plate Waste Results. *Korean J. Soc Food Sci*, 12(3): 339, 1996
- 21) Seung-Hee Kye, Wu-Seon Kim, Ju-Hee Lee, Sook-Ja Kim, Hyun-Kyung Moon. Survey on Waste Rates of Foods for Menu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3(1): 55, 1997
- 22) Dong-Hee Kim. Cooking Behavior for the Reduction of Food Wastes. *Korean J. Soc Food Sci*, 14(2): 159, 1998
- 23) Jae-Sook Han, Sang-Ook Hong, Jeong-Sook Kim, Jung-Lim Lee, Sung-Mee Huh. The Effect of Dietary Awareness and Dietary Habits on the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 Products. *Journal of the East Asian of Dietary Life* 6(3): 381, 1996
- 24) Yo-Sook Song, In-Sook Kwak. Disposal Consciousness of Foods Waste and Meal

- Management Behavior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Housewiv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2): 191, 1998
- 25) Byung-Jin Song, Sung-Ya Hong. A Study on the Dietary Pattern in surone, Korean J. Soc Food Sci, 8(1): 49, 1992
- 26) Korea daily NEWSnet <http://www.kdaily.com> IMF 시대의 자화상(5회)-소비행태, 1998, 11, 16
- 27) Korea daily NEWSnet <http://www.kdaily.com> 그래픽 생활정보-외식때 음식을 남기는 비율, 1997, 2, 23